

운영시간 開館時間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입장은 4시 30분까지) 午前10時～午後5時 (入館は4時30分まで)		
휴관일 休館日	매주 수요일 毎週水曜日		
입장료 入館料	성인 大人	1,200円	학생 中学生・小学生 800円



이 안내서는 배우 송혜교와 성신여대 서경덕 교수의 기획 및 후원으로 제작하였습니다. 本案内書は、女優ソングヘギョと徐敬徳誠信女子大教授の企画・後援で制作されました。

해외에서 만난 우리역사 이야기 [교토편]

海外で出会う韓国の歴史 [京都編]

- 단바망간기념관
- 고려미술관
- 운동주 시비
- 코 무덤(귀 무덤)
- 단바망간기념관
- 고려미술관
- 尹東柱詩碑
- 鼻塚(耳塚)



해외에서 만난 우리 역사 이야기

단바망간기념관 丹波マンガン記念館

주소: 교토부 교토시 우쿄구 게이호쿠 시모 나카 히가시 오오타니 32
 住所: 京都府京都市右京区京北下中町東大谷32

교토시 단바 지역의 망간광산 경도에 설치된 기념관으로, 탄광 노동자로 일했던 이정호(1932-1995)씨가 폐광산을 정비하여 1989년에 개관했다. 이 곳은 일제 강점기에 실제로 조선인 강제 징용이 있었던 장소로, 이정호씨는 후세에 그 역사를 알리고 일본 정부에 책임을 묻기 위해 기념관을 만들었다. 기념관에는 당시 노동자들의 모습과 광산 개발의 역사, 망간의 생산 과정 등을 전시하고 있다. 재정난으로 2009년 폐관했다가 2010년 '단바망간기념관 재건위원회'가 결성되어 2012년에 다시 문을 열었고, 한국과 일본의 시민단체가 기념관을 보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丹波マンガン鉱山(京都市右京区)の坑道を記念館にしたもので、自らが炭鉱労働者として働いた李貞鎬(1932-1995)氏が廃鉱を整備し、1989年に開館した。日本の植民地時代に朝鮮人の強制労働が行われた場所で、当時、李貞鎬氏は、後世にその歴史を伝えるとともに、日本政府に責任を問うために記念館を設立した。記念館には、当時の労働者の姿や鉱山開発の歴史、マンガンの生産過程などが展示されている。財政難のせいで2009年に閉館したが、2010年、「丹波マンガン記念館再建委員会」が結成され、2012年に再開館した。韓国と日本の市民団体が記念館の保存に努めている。



고려미술관 高麗美術館



주소 : 교토부 교토시 기타구 시치쿠 카미노키시초 15
 住所 : 京都府京都市北区 紫竹上岸町15

교토시 기타구 지역에 위치한 고려미술관은 해외에서 한국의 문화재만을 전시하는 유일한 박물관이다. 재일조선인 정조문(1918~1989)은 일본인들에게 유출된 한국의 문화재를 되찾기 위해 평생을 바쳐 문화재를 수집했고, 이를 동포들과 공유하고자 1988년 10월 25일 고려미술관을 열게 되었다. 고려미술관에서는 국보급 백자부터 고려청자, 회화, 민속자료 등 한국의 고미술품 약 1,700여 점을 소장하고 있으며, 일본의 문화 중심지인 교토에서 한국의 문화재를 전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또한 재외동포들에게 민족의 뿌리를 잊지 않게 해 주고, 한일 양국의 교류와 평화를 위한 공간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京都市北区にある高麗美術館は、韓国の文化財だけを展示する海外で唯一の博物館である。在日朝鮮人の鄭詔文(1918~1989)が、日本に流出した韓国の文化財を生涯かけて収集し、それを同胞と共有しようと、1988年10月25日に開館した。国宝級の白磁や高麗青磁、絵画、民俗資料など、韓国の古美術品約1,700点を収蔵しており、日本における文化の中心である京都で韓国の文化財を展示しているという点に大きな意義がある。また、在外同胞にとっては、民族のルーツを理解し、韓日両国の交流と平和を考える空間となっている。



운영시간 開館時間	오전10시~오후5시(입장은 4시30분까지) 午前10時~午後5時(入館は4時30分まで)					
휴관일 休館日	매주 수요일/연말연시/전시교체 기간 毎週水曜日/年末年始/展示替期間					
입장료 入場料	성인 一般	500円	대학생·고등학생 大学・高校生	400円	중학생이하 中学生以下	무료 無料
Website	www.koryomuseum.or.jp					

운동주 시비 尹東柱詩碑



주소 : 교토부 교토시 카미교구 겐부초 601
 住所 : 京都府京都市上京区 玄武町 601



도시사대학 운동주 시비 同志社大学尹東柱詩碑

운동주(1917~1945)는 도시사대학 영문과에 재학 중이던 1943년, 사상범으로 일본 경찰에 체포되어 후쿠오카 교도소에서 옥고를 치르던 중 순국했다.

이 시비는 운동주의 순국 50주기를 맞아 1995년 2월 16일에 도시사 교우회 코리아 클럽의 발의로 건립되었다. 시비에는 그의 대표작인 서시(序詩)가 새겨져 있는데, 한글로 된 서시는 그의 자필 원고를 그대로 옮긴 것이다. 도시사대학 측은 `운동주의 시가 동포만이 아니라, 민족을 초월하여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기 때문에 시비를 건립하고 추도했다'고 밝혔다.

운동주 시비 옆에는 도시사대학 영문과 동문이자 또 한 명의 한국을 대표하는 시인인 정지용의 시비가 세워져 있다.

尹東柱(1917~1945)は、同志社大学英文科に在学中の1943年、思想犯として日本の警察に逮捕され、福岡刑務所で獄死した。

この詩碑は、尹東柱の殉国50回忌を迎え、1995年2月16日に同志社校友会コリアクラブにより建立された。詩碑には尹東柱の代表作である「序詩」がハングルで刻まれているが、これは彼の直筆の原稿を写したものである。同志社大学は、「尹東柱の詩は同胞ばかりでなく民族を超えて人々の心を打つものである。よって、詩碑を建立して追悼した」としている。

尹東柱詩碑の隣には、同じく同志社大学英文科で学んだ、韓国を代表するもう一人の詩人、鄭芝溶の詩碑が建っている。

▶▶ 도시사대학 정지용 시비 同志社大学鄭芝溶の詩碑



주소 : 교토부 교토시 사쿄구 다카타카하라초 25
 住所 : 京都市左京区 田中高原町25



교토조형예술대학 운동주 시비 京都造形芸術大学尹東柱詩碑

교토에는 또 다른 운동주 시비도 존재하는데, 하나는 2006년 운동주의 하숙집이 있던 자리인 교토조형예술대학 다카하라학사에 세워졌다. 나머지 하나는 2017년 운동주 탄생 100주년을 맞아 '교토 우지시 우지 강변 근처'에 건립될 예정이다.

京都には他にも2つの尹東柱詩碑がある。一つは2006年、尹東柱の下宿があった所の京都造形芸術大学高原学舎に建立された。もう一つは2017年尹東柱誕生100周年を迎え、'京都宇治市宇治川畔の近くに立てられるつもりである。'



코 무덤(귀 무덤) 鼻塚(耳塚)



주소 : 교토부 교토시 히가시야마구 차야초 533-1
 住所 : 京都府京都市東山区茶屋町 533-1

이 곳은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때 왜군이 조선인 12만6,000여명의 코와 귀를 묻은 무덤이다. 임진왜란을 일으킨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 1536~1598)를 신으로 모신 도요쿠니(豊國) 신사 100m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 당시 왜군은 조선인의 코나 귀를 벤 후 소금에 절여와 전공의 표식으로 삼았다.

원래 이름은 비총(鼻塚·코 무덤)이었다가 코 무덤 보다는 덜 잔혹해 보이는 귀 무덤으로 이름을 바꿨다고 한다. 1969년 일본 국가 사적으로 지정되어, 현재 교토시의 일부 지원을 받아 관리되고 있다. 2007년부터는 민간 등 재외동포들을 중심으로 이곳에서 위령제를 매년 진행하고 있다.

壬辰倭乱と丁酉再乱(文禄・慶長の役)のとき、日本軍が討取った朝鮮人12万6,000人の鼻と耳を埋めた塚である。壬辰倭乱を起こした豊臣秀吉(1536~1598)を祀る豊国神社から100m離れた所に位置している当時、日本軍は、朝鮮人の鼻や耳を削ぎ、塩漬けにして持ち帰り、戦功の証とした。

当初は「鼻塚」と呼ばれていたが、残酷な印象を和らげるために「耳塚」に名称を変えたという。1969年に日本の国指定史跡となり、現在、京都市から部分的な支援を受けて管理されている。2007年からは毎年、民団など在外同胞が中心となってここで慰霊祭を執り行っている。

